

### 보잉, B777취항을 위해 ETOPS 개정 시도

보잉사는 자사의 B777 취항영역을 늘리기 위해 ETOP(Extended Range Twinengined Operations) 규정의 근본적인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의 ETOPS규정은 쌍발항공기의 항로를 우회공항과 180분 거리 이

내에 있는 구역 안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FAA의 ETOPS 규정 15% 연장 요구에 이어 시도되고 있으며 FAA에서는 곧 15% 연장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B777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우회공항에서 최대 207분 거리의 지역까지 항로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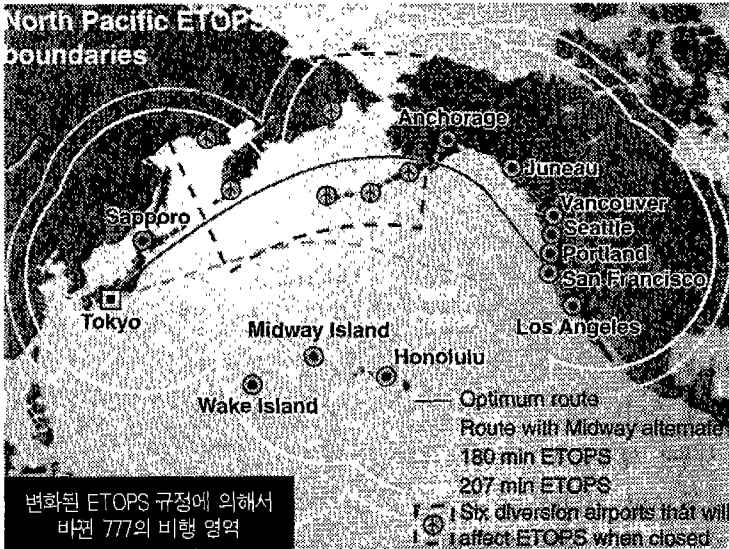
보잉사의 ETOPS 담당 부사장

인 체트 에크스트랜드는 보잉 777은 무제한의 ETOPS를 만족할만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ETOPS의 거리규정 연장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ETOPS 규정은 엔진의 수가 아니라 성능에 의해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B777의 비행중 엔진 고장 발생율은 0.02%로 이것은 엔진 4개인 B747보다도 오히려 안전성 면에서 앞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잉은 쌍발항공기에 대한 대양 횡단 금지규정이 처음 만들어졌던 1953년에 비해서 현재 엔진의 신뢰도는 열 배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ETOPS 규정 전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인도항공 기종현대화 포기

국영 인도항공이 노후된 에어버스 300B2/B4 11대와 보잉 737-200 12대를 신형기로 대체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고 기존 기체의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내부개수를 포함한 이번 정비보수 계획으로 인도항공의 노후기체들은 최소 수년 이상 더 운용될 것이라고 인도항공은 밝혔다. 이 보수작업은 3월달



중에 시작되어 올해 말쯤에 끝날 예정이다.

인도항공은 노후기의 대체를 위해 좁은통체형으로 에어버스의 A318/319와 보잉 717-200, 737-600/700을 고려하고 있었고 넓은 동체형으로 A330-200/300과 보잉 767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기종 현대화 계획은 1997년부터 검토에 들어갔으나 인도의 정치, 경제적인 사정으로 기종 결정이 지연되어 왔다.

### 유럽 항공안전기구 윤곽 드러나

유럽 항공안전기구(EASA: Europe Aviation Safety Authority)의 구성을 위한 새로운 조약 초안이 15개의 EU회원국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JAA의 클라우스 코플린 사무총장이 밝혔다. 지난 해 11월경에 공개될 예정이었던 이 조약안은 EASA가 향후 EU의 회원국뿐 아니라 유럽민간항공회의(ECAC: European Civil Aviation Conference)의 35개 회원국에까지 항공분야의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약안이 확정되어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5년 이상이 소

요될 것이며 이보다 더 빨리 작업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코플린 사무총장은 밝혔다.

### KLM, 747 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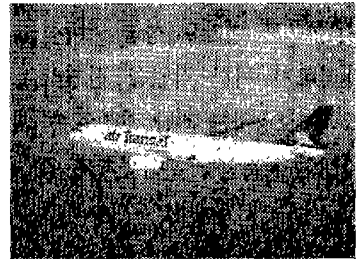
KLM항공이 4대의 747 항공기를 주문할 예정이다. KLM은 이미 19대의 747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그 중 14대가 콰이퍼이다. KLM은 넓은 동체형 장거리항공기로 보유기단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747과 MD-11, 767-300ER 기종을 구매해서 규모를 확장시키고 있다.

### 에어필리핀 항공 해외취항 승인

에어필리핀 항공은 최근 필리핀 민간항공위원회로부터 일본, 한국, 홍콩, 타이완, 미국 취항허가를 받고 오는 6월부터는 이들 지역으로 취항할 예정이다.

에어필리핀 항공은 보잉 737 10대와 MD-82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거리 운항을 위해서 보잉 747-200 4대를 리스할 예정이다. 또한 동 항공사는 단거리 노선 운항을 보강하기 위해 에어버스 A300이나 보잉 767 기종의 도입도 검토중이다.

### R-R 트랜트 엔진 장착한 A330-200 에어 트랜셋 항공에 인도



A330-200으로는 최초로 롤스로이스의 트랜트 772B 엔진을 장착한 기체가 에어 트랜셋 항공에 인도되었다. 이 기체의 인도로 에어 트랜셋 항공은 현대화 계획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트랜트 엔진을 장착한 A330-200에 대한 캐나다 교통부와 JAA(Joint Aviation Authority)의 형식 증명은 6개월 이상 걸린 200시간의 엔진 가동시험과 75회 이상의 시험비행 후에야 승인되었다.

몬트리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어 트랜셋 항공의 현재 A330 보유대수는 2대로서 두 대 모두 ILF(International Lease Finance)에서 리스한 것이며 앞으로 A330을 몬트리올에서 하와이, 프랑크푸르트, 아테네 등으로 가는 장거리 항로에 취항시킬 계획이다.